

## 외래 환자들의 의약품 정보원과 선호도 분석

이 유 정<sup>#</sup>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Received April 4, 2010; Revised June 10, 2010; Accepted June 10, 2010)

## Patients' Sources of Drug Information and Their Preferences in Community Pharmacy

Yu Jeung Lee<sup>#</sup>

Graduate School of Clinical Pharmac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40-742, Korea

**Abstract-** Appropriate drug information is essential in pharmaceutical care practice. In recent years, educating patients with their prescription and drug therapy is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aspect of health care. Appropriate drug information has been shown to improve patients' adherence to their medication and the results of pharmacotherap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patients' sources of drug information and their preferences in Korea. This study was a 11-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from February 8, 2010 to February 25, 2010. Major sources of drug information used by respondents, proportions of respondents who received drug information on administration, dosage, indication, or warnings and precautions, sources of drug information which patients prefer, and the reasons of their preferences were studied. Of the 303 respondents, the most common sources of drug information were pharmacists (29.7%), doctors (23.8%), and the Internet (17.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ources of drug information in proportions of respondents who received drug information on administration, dosage, indication, or warnings and precautions. Patients preferred pharmacists as a drug information source the most (38.9%), and the reasons were reliability (72.0%) and easy to use (28.0%).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establish the best way to provide appropriate drug information for patients and improve the results of pharmacotherapy.

**Keywords** □ sources of drug information, preferences, patients

환자에게 적절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약료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환자들이 처방받은 처방전과 약물요법, 그리고 처방약물의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 환자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크게 부각되고 있다.<sup>1)</sup>

의약품 정보는 환자들이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의사나 약사 등의 보건의료전문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얻는 경로는 보건의료전문가 이외에도 잡지나 텔레비전, 인터넷, 의약품 설명서, 친인척 또는 지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득한 의약품 정보는 그 범위 및 질적 차이가 크다. 취득한 정보의 양은 많더라도 정작 필요한 정보는 없을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일 수도 있다. 또는 정보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환자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

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환자들은 유용한 의약품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sup>2)</sup>

과거에는 많은 환자들의 의약품 정보 취득 욕구가 저조하였으며 보건의료전문가가 지시하는 대로 의약품을 복용할 뿐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환자들은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무엇이며 내 신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sup>3)</sup>

한편 적절한 의약품 정보를 취득한 환자들은 의약품 복용 순응도와 약물요법 결과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 비해 월등히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sup>4,5)</sup> 의약품 복용 순응도가 낮은 경우에는 질환 재발 위험성 증가, 치료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결국 환자가 현재 받고 있는 약물요법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환자에게 적절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약물요법 결과를 향상시켜 준다.<sup>6,7)</sup>

현재 국내에는 많은 종류의 의약품 정보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어떤 정보원을

<sup>#</sup>본 논문에 관한 문의는 저자에게로  
(전화) 02-2077-7545 (팩스) 02-3477-7343  
(E-mail) yujeung@sookmyung.ac.kr

주로 사용하며 선호하는 정보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 국내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의 종류와 선호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환자들의 의약품 정보원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향후 환자들에게 보다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면 장기적으로 환자의 약물요법 결과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 연구 방법

####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약국 5군데를 선정하여 약국을 방문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약국 선정은 연구자로부터 설문조사 방법에 대하여 교육받은 5명의 약사들이 근무하는 각각의 약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인 복용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성인 환자들에게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조사를 수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문조사자가 충분히 설문내용을 대상자에 설명한 후 설문지 작성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2월 8일부터 2010년 2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지역약국을 방문한 성인 환자들의 의약품 정보원과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 11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연구자가 본 연구를 위하여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약품 정보원', '의약품 정보 항목', '의약품 정보원 선호도'의 4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각각 4개, 1개, 4개,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자기평가 건강상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약품 정보원' 항목은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을 묻는 문항이 있다. '의약품 정보 항목'에서는 제공받은 의약품 정보 항목에 복용법, 복용량,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부작용, 병용금지, 상호작용, 연령금지, 임부금지 등)이 각각 포함되는지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정보원 선호도'에서는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약품 정보원을 묻는 문항과 해당 의약품 정보원을 선호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폐쇄형 질문이었으며, 선호하는 의약품 정보원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문항만 선택할 수 있는 답변으로 '기타' 항목이 있어 개방형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방법은 우선 설문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과 선호도 관련 문항들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빈도분석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

다. 또한 성별, 연령, 최종학력 및 자기평가 건강상태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과 선호도 관련 문항들에 대한 응답 결과 분포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에 따라 제공받은 의약품 정보 항목 관련 문항들에 대한 응답 결과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선호하는 의약품 정보원에 따라 해당 의약품 정보원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역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SPSS 12.0과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였다.

### 연구 결과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지는 총 303부가 회수되었으며 5군데 약국에서 각각 53(17.5%), 60(19.8%), 60(19.8%), 63(20.8%), 67(22.1%)부가 회수되어 약국 간 연구 대상자 수는 대체적으로 균등한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설문지를 63부 회수한 약국은 대로변 상권에 위치한 약국이었으며 그 외 4군데 약국은 모두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약국이였다.

총 303명의 연구 대상자 중 남성이 125명(41.3%), 여성이 176명(58.1%), 무응답이 2명(0.7%)이었다. 연령은 20대 응답자가 56명(18.5%), 30대 응답자가 71명(23.4%), 40대 응답자가 91명(30.0%), 50대 응답자가 55명(18.2%), 60대 이상 응답자가 28명

Table I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                           | Parameter             | Frequency (n) | Percentage (%) |
|---------------------------|-----------------------|---------------|----------------|
| Gender                    | Male                  | 125           | 41.3           |
|                           | Female                | 176           | 58.1           |
|                           | No response           | 2             | 0.7            |
|                           | Total                 | 303           | 100.0          |
| Age                       | 20s                   | 56            | 18.5           |
|                           | 30s                   | 71            | 23.4           |
|                           | 40s                   | 91            | 30.0           |
|                           | 50s                   | 55            | 18.2           |
|                           | Over 60               | 28            | 9.2            |
|                           | No response           | 2             | 0.7            |
|                           | Total                 | 303           | 100.0          |
| Education                 | High school level     | 98            | 32.3           |
|                           | University level      | 175           | 57.8           |
|                           | Graduate school level | 28            | 9.2            |
|                           | No response           | 2             | 0.7            |
|                           | Total                 | 303           | 100.0          |
| Self-perception of health | Good                  | 95            | 31.4           |
|                           | Fair                  | 188           | 62.0           |
|                           | Poor                  | 19            | 6.3            |
|                           | No response           | 1             | 0.3            |
|                           | Total                 | 303           | 100.0          |

(9.2%), 무응답이 2명(0.7%)이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98명(32.3%), 대학교 졸업이 175명(57.8%), 대학원 졸업이 28명(9.2%), 무응답이 2명(0.7%)이었다. 자가평가 건강상태는 '좋다'라고 응답한 환자가 95명(31.4%), '보통'이 188명(62.0%), '나쁘다'가 19명(6.3%), 무응답이 1명(0.3%)이었다(Table I).

### 의약품 정보원

총 303명의 연구 대상자 중 의약품 정보를 주로 약사로부터 얻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90명(29.7%)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가 의약품 정보원인 경우는 72명(23.8%)이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52명(17.2%)이었다. 텔레비전은 29명(9.6%), 잡지 또는 신문은 23명(7.6%), 친인척 또는 지인은 21명(6.9%), 의약품 설명서는 14명(4.6%), 간호사는 2명(0.7%)이었다(Fig. 1). 성별과 최종학력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에 차이가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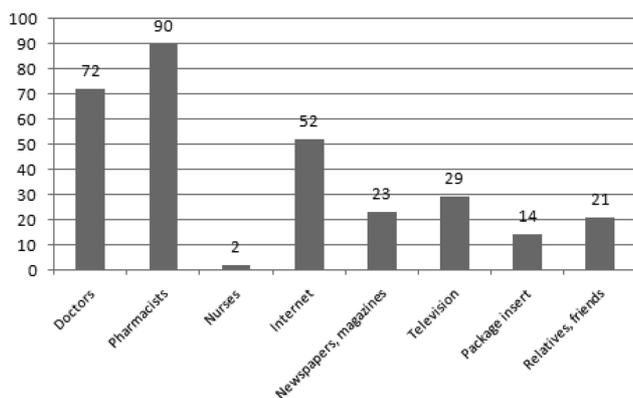


Fig. 1 - Patients' sources of drug information.

Table II - Sources of drug information according to age groups

| Age     | Sources of drug information |             |        |          |                       |            |                |                    | Total   | $\chi^2$ (p) |
|---------|-----------------------------|-------------|--------|----------|-----------------------|------------|----------------|--------------------|---------|--------------|
|         | Doctors                     | Pharmacists | Nurses | Internet | Newspapers, magazines | Television | Package insert | Relatives, friends |         |              |
| 20s     | 20                          | 11          | 1      | 17       | 0                     | 4          | 2              | 1                  | 56      | 44.656*      |
|         | 35.70%                      | 19.60%      | 1.80%  | 30.40%   | 0.00%                 | 7.10%      | 3.60%          | 1.80%              | 100.00% |              |
| 30s     | 15                          | 19          | 1      | 15       | 3                     | 7          | 3              | 8                  | 71      |              |
|         | 21.10%                      | 26.80%      | 1.40%  | 21.10%   | 4.20%                 | 9.90%      | 4.20%          | 11.30%             | 100.00% |              |
| 40s     | 20                          | 28          | 0      | 12       | 11                    | 9          | 7              | 4                  | 91      |              |
|         | 22.00%                      | 30.80%      | 0.00%  | 13.20%   | 12.10%                | 9.90%      | 7.70%          | 4.40%              | 100.00% |              |
| 50s     | 9                           | 22          | 0      | 7        | 7                     | 5          | 1              | 4                  | 55      |              |
|         | 16.40%                      | 40.00%      | 0.00%  | 12.70%   | 12.70%                | 9.10%      | 1.80%          | 7.30%              | 100.00% |              |
| Over 60 | 7                           | 10          | 0      | 1        | 1                     | 4          | 1              | 4                  | 28      |              |
|         | 25.00%                      | 35.70%      | 0.00%  | 3.60%    | 3.60%                 | 14.30%     | 3.60%          | 14.30%             | 100.00% |              |
| Total   | 71                          | 90          | 2      | 52       | 22                    | 29         | 14             | 21                 | 301     |              |
|         | 23.60%                      | 29.90%      | 0.70%  | 17.30%   | 7.30%                 | 9.60%      | 4.70%          | 7.00%              | 100.00% |              |

\*: p<0.05

교차분석(유의확률 <0.05)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령에 따라 교차분석(유의확률 <0.05) 결과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에 유의한 차이(검정통계량=44.656)가 있었다. 20대는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이 의사라고 응답한 경우가 20명(35.7%)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약사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0대가 17명(30.4%), 30대가 15명(21.1%), 40대가 12명(13.2%), 50대가 7명(12.7%), 60세 이상 1명(3.6%)으로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Table II).

### 의약품 정보 항목

개별 환자들이 선택한 의약품 정보원에서 의약품의 복용법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한 환자는 총 연구 대상자 303명 중 230명(75.9%)이었고 73명(24.1%)은 복용법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복용량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한 환자는 221명(73.0%)이었고 81명(26.7%)은 복용량 정보를 얻지 못하였으며 1명(0.3%)은 무응답이었다. 263명(86.8%)은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40명(13.2%)은 얻지 못하였다. 사용상의 주의사항(부작용, 병용금지, 상호작용, 연령금지, 임부금지 등) 정보를 얻은 환자는 188명(62.0%)이었고 114명(37.6%)은 얻지 못하였으며 1명(0.3%)은 무응답이었다. Table III 부터 Table VI까지는 선택한 의약품 정보원에 따라 의약품의 복용법, 복용량,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정보 취득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사가 의약품 정보원인 경우 62명(86.1%), 약사인 경우 80명(88.9%), 간호사 2명(100.0%), 인터넷 38명(73.1%), 잡지 또는 신문 8명(34.8%), 텔레비전 12명(41.4%), 의약품 설명서 14명(100.0%), 친인척 또는 지인 14명(66.7%)이

**Table III** –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received drug information on administration according to sources of drug information

| Sources of drug information | Did you get drug information on administration? |        | Total   | $\chi^2$ (p) |
|-----------------------------|---|--------|---------|--------------|
|                             | Yes   | No     |         |              |
| Doctors                     | 62  | 10     | 72      | 58.854***    |
|                             | 86.10%  | 13.90% | 100.00% |              |
| Pharmacists                 | 80  | 10     | 90      |              |
|                             | 88.90%  | 11.10% | 100.00% |              |
| Nurses                      | 2   | 0      | 2       |              |
|                             | 100.00%   | 0.00%  | 100.00% |              |
| Internet                    | 38  | 14     | 52      |              |
|                             | 73.10%  | 26.90% | 100.00% |              |
| Newspapers, magazines       | 8   | 15     | 23      |              |
|                             | 34.80%  | 65.20% | 100.00% |              |
| Television                  | 12  | 17     | 29      |              |
|                             | 41.40%  | 58.60% | 100.00% |              |
| Package insert              | 14  | 0      | 14      |              |
|                             | 100.00%   | 0.00%  | 100.00% |              |
| Relatives, friends          | 14  | 7      | 21      |              |
|                             | 66.70%  | 33.30% | 100.00% |              |
| Total                       | 230   | 73     | 303     |              |
|                             | 75.90%  | 24.10% | 100.00% |              |

\*\*\*: p<0.001

**Table IV** –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received drug information on dosage according to sources of drug information

| Sources of drug information | Did you get drug information on dosage? |        | Total   | $\chi^2$ (p) |
|-----------------------------|---|--------|---------|--------------|
|                             | Yes                                     | No     |         |              |
| Doctors                     | 60                                      | 11     | 71      | 64.367***    |
|                             | 84.50%                                  | 15.50% | 100.00% |              |
| Pharmacists                 | 81                                      | 9      | 90      |              |
|                             | 90.00%                                  | 10.00% | 100.00% |              |
| Nurses                      | 2                                       | 0      | 2       |              |
|                             | 100.00%                                 | 0.00%  | 100.00% |              |
| Internet                    | 33                                      | 19     | 52      |              |
|                             | 63.50%                                  | 36.50% | 100.00% |              |
| Newspapers, magazines       | 8                                       | 15     | 23      |              |
|                             | 34.80%                                  | 65.20% | 100.00% |              |
| Television                  | 11                                      | 18     | 29      |              |
|                             | 37.90%                                  | 62.10% | 100.00% |              |
| Package insert              | 14                                      | 0      | 14      |              |
|                             | 100.00%                                 | 0.00%  | 100.00% |              |
| Relatives, friends          | 12                                      | 9      | 21      |              |
|                             | 57.10%                                  | 42.90% | 100.00% |              |
| Total                       | 221                                     | 81     | 302     |              |
|                             | 73.20%                                  | 26.80% | 100.00% |              |

\*\*\*: p<0.001

**Table V** –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received drug information on indication according to sources of drug information

| Sources of drug information | Did you get drug information on indication? |        | Total   | $\chi^2$ (p) |
|-----------------------------|---|--------|---------|--------------|
|                             | Yes   | No     |         |              |
| Doctors                     | 64  | 8      | 72      | 15.177*      |
|                             | 88.90%                                      | 11.10% | 100.00% |              |
| Pharmacists                 | 77  | 13     | 90      |              |
|                             | 85.60%                                      | 14.40% | 100.00% |              |
| Nurses                      | 2   | 0      | 2       |              |
|                             | 100.00%                                     | 0.00%  | 100.00% |              |
| Internet                    | 47  | 5      | 52      |              |
|                             | 90.40%                                      | 9.60%  | 100.00% |              |
| Newspapers, magazines       | 17  | 6      | 23      |              |
|                             | 73.90%                                      | 26.10% | 100.00% |              |
| Television                  | 21  | 8      | 29      |              |
|                             | 72.40%                                      | 27.60% | 100.00% |              |
| Package insert              | 14  | 0      | 14      |              |
|                             | 100.00%                                     | 0.00%  | 100.00% |              |
| Relatives, friends          | 21  | 0      | 21      |              |
|                             | 100.00%                                     | 0.00%  | 100.00% |              |
| Total                       | 263   | 40     | 303     |              |
|                             | 86.80%                                      | 13.20% | 100.00% |              |

\*: p<0.05

**Table VI** –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received drug information on warnings and precautions according to sources of drug information

| Sources of drug information | Did you get drug information on warnings and precautions? |        | Total   | $\chi^2$ (p) |
|-----------------------------|---|--------|---------|--------------|
|                             | Yes   | No     |         |              |
| Doctors                     | 55  | 16     | 71      | 39.489***    |
|                             | 77.50%  | 22.50% | 100.00% |              |
| Pharmacists                 | 65  | 25     | 90      |              |
|                             | 72.20%  | 27.80% | 100.00% |              |
| Nurses                      | 1   | 1      | 2       |              |
|                             | 50.00%  | 50.00% | 100.00% |              |
| Internet                    | 27  | 25     | 52      |              |
|                             | 51.90%  | 48.10% | 100.00% |              |
| Newspapers, magazines       | 9   | 14     | 23      |              |
|                             | 39.10%  | 60.90% | 100.00% |              |
| Television                  | 9   | 20     | 29      |              |
|                             | 31.00%  | 69.00% | 100.00% |              |
| Package insert              | 13  | 1      | 14      |              |
|                             | 92.90%  | 7.10%  | 100.00% |              |
| Relatives, friends          | 9   | 12     | 21      |              |
|                             | 42.90%  | 57.10% | 100.00% |              |
| Total                       | 188   | 114    | 302     |              |
|                             | 62.30%  | 37.70% | 100.00% |              |

\*\*\*: p<0.001

의약품 복용법 정보를 취득하였다. 의약품 복용량 정보를 취득한 비율도 의사, 약사, 간호사, 의약품 설명서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의약품 효능효과 정보를 취득한 환자는 의약품 정보원이 의사인 경우 64명(88.9%), 약사 77명(85.6%), 간호사 2명(100.0%), 인터넷 47명(90.4%), 잡지 또는 신문 17명(73.9%), 텔레비전 21명(72.4%), 의약품 설명서 14명(100.0%), 친인척 또는 지인 21명(100.0%)이었다. 의사가 의약품 정보원인 경우 55명(77.5%), 약사인 경우 65명(72.2%), 간호사 1명(50.0%), 인터넷 27명(51.9%), 잡지 또는 신문 9명(39.1%), 텔레비전 9명(31.0%), 의약품 설명서 13명(92.9%), 친인척 또는 지인 9명(42.9%)이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정보를 취득하였다.

### 의약품 정보원 선호도

총 303명의 연구 대상자 중 118명(38.9%)이 약사에게 의약품 정보를 얻기를 가장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82명(27.1%)은 의사, 5명(1.7%)은 간호사, 46명(15.2%)는 인터넷, 8명(2.6%)은 잡지 또는 신문, 14명(4.6%)은 텔레비전, 27명(8.9%)은 의약품 설명서, 3명(1.0%)은 친인척 또는 지인을 가장 선호하는 의약품 정보원으로 선택하였다(Fig. 2). 성별, 연령, 최종학력 및 자가평가 건강 상태에 따라 선호하는 의약품 정보원에는 유의한 차이(유의확률 <0.05)가 없었으며, 선호하는 의약품 정보원에 따라 해당 의약품 정보원을 선택한 이유에는 유의한 차이(유의확률 <0.001)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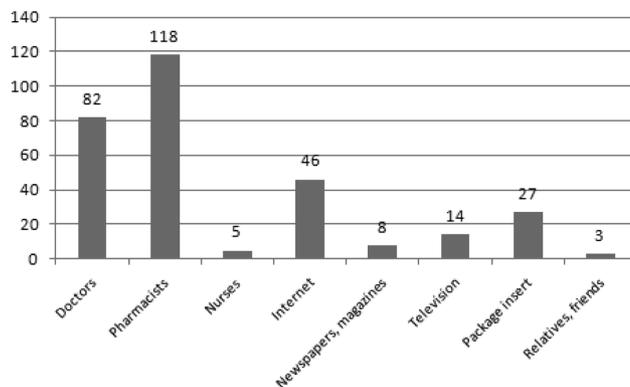


Fig. 2 – Patients' preferences of drug information sources.

있었다. 의사를 선호하는 의약품 정보원으로 선택한 경우(80명) 그 이유는 정보의 신뢰성이 72명(90.0%), 정보 취득의 편리함이 5명(6.3%)이었다. 약사를 선택한 경우(118명)에는 정보의 신뢰성이 85명(72.0%), 정보 취득의 편리함이 33명(28.0%)이었고, 인터넷을 선택한 경우(46명)에는 정보의 신뢰성이 4명(8.7%), 정보 취득의 편리함이 39명(84.8%)이었다(Table VII).

### 고찰 및 결론

전통적으로 환자들의 의약품 정보 취득은 주로 의사나 약사

Table VII – Reasons why patients prefer the specific sources of drug information

| Sources of drug information which patients prefer | Reasons why patients prefer the specific sources of drug information |             |          | Total   | $\chi^2$ (p) |
|---|--|-------------|----------|---------|--------------|
|   | Reliability  | Easy to use | Etcetera |         |              |
| Doctors   | 72   | 5           | 3        | 80      | 109.099***   |
|   | 90.00%   | 6.30%       | 3.80%    | 100.00% |              |
| Pharmacists                                       | 85   | 33          | 0        | 118     |              |
|   | 72.00%   | 28.00%      | 0.00%    | 100.00% |              |
| Nurses  | 4  | 1           | 0        | 5       |              |
|   | 80.00%   | 20.00%      | 0.00%    | 100.00% |              |
| Internet  | 4  | 39          | 3        | 46      |              |
|   | 8.70%  | 84.80%      | 6.50%    | 100.00% |              |
| Newspapers, magazines                             | 3  | 5           | 0        | 8       |              |
|   | 37.50%   | 62.50%      | 0.00%    | 100.00% |              |
| Television  | 3  | 10          | 1        | 14      |              |
|   | 21.40%   | 71.40%      | 7.10%    | 100.00% |              |
| Package insert                                    | 12   | 14          | 1        | 27      |              |
|   | 44.40%   | 51.90%      | 3.70%    | 100.00% |              |
| Relatives, friends                                | 1  | 2           | 0        | 3       |              |
|   | 33.30%   | 66.70%      | 0.00%    | 100.00% |              |
| Total   | 184  | 109         | 8        | 301     |              |
|   | 61.10%   | 36.20%      | 2.70%    | 100.00% |              |

\*\*\*: p<0.001

등 보건의료전문인이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왔다. 그러나 최근 점차 많은 환자들이 수동적으로 의약품 정보를 전달받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의약품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여러 의약품 정보원을 찾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으로 의사(23.8%)와 약사(29.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인터넷(17.2%) 또한 그 뒤를 이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환자들의 높은 의약품 정보 취득 욕구를 나타낸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터넷을 의약품 정보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20대는 30.4%에 달하였다. 연령대가 높은 환자들에 비하여 젊은 환자들은 인터넷을 보건의료전문인 또는 의약품 설명서 등에 비해 사용하기 쉬운 의약품 정보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sup>8)</sup> 그러나 인터넷으로부터 취득한 의약품 정보는 질적 편차가 크며,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sup>9)</sup>

의사와 약사, 의약품 설명서는 높은 비율로 모든 의약품 정보 항목을 제공하였으나 다른 의약품 정보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잡지나 신문, 또는 텔레비전이 의약품 정보원인 경우 의약품 복용법, 복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비율은 30~40%대 이었으나, 효능효과는 70%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대중 광고에는 복용법, 복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보다 효능효과를 두드러지게 광고하기 마련인데 잡지나 신문, 또는 텔레비전이 의약품 대중 광고 매체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환자들은 보건의료전문인을 가장 신뢰성 있는 의약품 정보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호주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sup>10)</sup> 단, 호주의 연구는 의약품 정보원 대신 의료 정보원을 연구했다는 것이 본 연구와의 차이점이다. 호주의 연구 결과 의사(49%)와 약사(23%)가 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료 정보원이었으며, 또한 가장 신뢰성 있는 의료 정보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환자들이 보건의료전문인을 제외한 다른 의약품 정보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모두 신뢰성 보다는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인터넷은 84.8%가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대상이 서울시에 위치한 지역약국 방문 성인들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지역에 위치한 약국 방문 성인들도 포함한 표본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의약품 정보의 항목별 취득 여부를 조사하였지만 취득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원으로 사용한 인터넷은 환자에 따라 일반적

인터넷 검색 홈페이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전문적 의약품 정보 제공 홈페이지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본 연구는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환자의 적절한 의약품 정보 취득은 의약품 복용 순응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약물요법 결과를 향상시킨다.<sup>4,7)</sup> 본 연구는 국내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원의 종류와 각 의약품 정보원으로부터 적절한 정보 취득 여부 및 선호하는 의약품 정보원과 그 이유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유용하고 신뢰성 있는 의약품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면 궁극적으로 환자의 약물요법 결과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Wolf, M. S., Davis, T. C., Shrank, W. H., Neuberger, M. and Parker, R. M. : A critical review of FDA-approved Medication Guides. *Patient Educ Couns.* **62**, 316 (2006).
- 2) Coulter, A., Entwistle, V. and Gilbert, D. : Sharing decisions with patients: is the information good enough? *BMJ* **318**, 318 (1999).
- 3) Newby, D. A., Hill, S. R., Barker, B. J., Drew, A. K. and Henry, D. A. : Drug information for consumers: should it be disease or medication specific? Results of a community survey. *Aust N Z J Public Health* **25**, 564 (2001).
- 4) Koo, M. M., Krass, I. and Aslani, P. :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use of written drug information. *Ann. Pharmacother.* **37**, 259 (2003).
- 5) Melnyk, P. S., Shevchuk, Y. M. and Remillard, A. J. : Impact of the dial access drug information service on patient outcome. *Ann. Pharmacother.* **34**, 585 (2000).
- 6) Dowell, J. and Hudson, H. : A qualitative study of medication-taking behaviour in primary care. *Family Practice.* **14**, 369 (1997).
- 7) Franceschi, A., Tuccori, M., Bocci, G., Vannozzi, E., Di Paolo, A., Barbara, C., Lastella, M., Blandizzi, C. and Del Tacca, M. : Drug therapeutic failures in emergency department patients. A university hospital experience. *Pharmacological Research* **49**, 85 (2004).
- 8) Gray, N. J., Klein, J. D., Noyce, P. R., Sesselberg, T. S. and Cantrill, J. A. : Health information-seeking behaviour in adolescences: the place of the internet. *Soc. Sci. Med.* **60**, 1467 (2005).
- 9) Shepperd, S., Charnock, D. and Gann, B. : Helping patients access high quality health information. *BMJ* **319**, 764 (1999).
- 10) Worsley, A. Perceived reliability of sources of health information. *Health Educ Res.* **4**, 367 (1989).